

[종합·해설]

■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광주시 “농산물 농약 검사 강화해야” 전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문제 없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6일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정과 도정의 난점들을 추궁했다.

◇광주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는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농산물 잔류 농약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재신 의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상시 체계로 강화하고 이 결과도 효과적으로 흥보해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송재선 의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이명자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오리만을 샘플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샘플링 대상을 확장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숙 위원장은 “중국산 김치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 보건위생과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도의회는 경제과학국과 농정국, 종합민원실·감사관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남도의 역점 시책인 친환경농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기병 의원은 “현재 전남찰 브랜드가 323개에 달해 소비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고 있다”며 “이를 시·군별 광역 브랜드로 단일화하고 특품·상품·증정품·하우스 등 상품별로 구별 판매해 유통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도의 자체 쌀 브랜드인 풍광수도는 시·군들이 자체 브랜드 쌀을 포장하고 남은 저질미를 포장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바람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병순 의원은 “친환경농업 기반사

업인 푸른들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 폐비닐수거 등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지난 2004년에는 71%에서 올해는 54%로 무려 17%가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전남도는 도비를 3년동안 계속 11%만 지원해 시·군비 부담은 2004년 17%에서 올해 26%로, 농가 부담은 2%에서 9%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고승자 의원은 친환경농자재 공급 사업의 부실을 추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왕겨를 이용한 친환경 자재 시설 7곳에 8억2천6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지난 8월과 11월 현장 조사 결과 기계시설 결함으로 일부가 멈춰 있었다”며 “또한 가동중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역시 양도 적고 공급 가가 비싸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潘 내정자 뉴욕 도착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정자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뉴욕 임시 숙소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도착, 유엔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유엔 경호요원이다.

안방잔치서도 꼴찌할텐가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국체육대회는 더 이상 내고장 출신 선수들이 향토의 명예를 걸고 뛰는 스포츠 체전이 아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제는 ‘돈잔치’가 됐다.

재정이 넉넉한 차지단체가 상위권을 점령하고 우승도 한다. 선수의 고향이나, 연고지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수의 출신지와 상관없이 고액을 들여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면 그는 은혜(?)를 입은 그 고장을 위해 뛸 뿐이다. 4~5년전부터 이런 풍조가 만연하면서 전국체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광주는 맨날 꼴찌다. 매번 우수 선수를 빼앗기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 2007년과 2008년 연이어 전국체전을 개최하지만 상위 입상은 기대난이다.

내년 전국체전을 여는 광주시체육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같은 64억3천여만원으로 꽁꽁 묶였다. 경기 130여개, 서울 120여개에 비하면 절반수준이다. 부산, 경남, 대전, 인천에 뛰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울산에 비해선 약간 많지만 울산은 실업팀이 많아 선수육성비가 들지 않는다. 따라서 주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 예산이라고 보면된다.

광주시체육회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9억여 원을 늘려 83억원은 확보해야 지금껏 전국체전 개최도시들이 거둔다면 상위 입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계산은 이렇다. 우선 시설비 2억4천만원이 필요하다. 이어 체전개최지 소속으로 뛰는 상무팀(축구, 야구 등 7팀) 출전비로 2억5천만~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제87회 개최지인 경북은 상무팀 4종목 출전비로 2억5천만원을, 86회체전을 개최한 울산은 2억원을 들었다.

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선수확충에 따른 훈련비다. 광주는 지난해 훈련비로 53억1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7종목, 74명의 선수확충과 수영 5명, 체조 5명, 인라인롤러 5명등 우수선수 영입 등에 67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13억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광주의 우수선수 영입은 물건이 가고 기존 선수들을 견사하는 것도 힘들어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광주시의 재정이 풍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려 4천여점의 성적을 개최지에 선물하는 상무팀 출전비(3억여원)까지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15년만에 열리는 ‘안방 잔치’에 개최지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포기하고 또다시 최하위의 명예를 쓸수는 없지 않는가.

/lion@kwangju.co.kr

렉서스 내비게이션 독도 지명 빠져

■ 도요타 고의 누락 의혹

도요타가 최근 국내시장에 출시한 렉서스 LS460의 내비게이션에 독도 지명 표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것이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 고의적인 누락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렉서스 LS460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일본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인 덴소가 제작했고, 이 내비게이션에 사용된 지도는 한국의 내비게이션용 지도 제작업체인 PMI가 만들었다.

PMI가 덴소측에 지도를 공급하고, 덴소 측이 이 지도를 렉서스 LS460의 내비게이션에 맞도록 작업을 한 것이다.

PMI는 도요타 외에도 BMW에 내비게이션용 한국 지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에도 이 지도를 포함한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가 공급하는 지도에는 물론 독도 지명이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아시안게임 동시 입장 제안

북한이 다음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06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제안해 왔다.

통일부 “응답 남북문화교류본부장은 16일 “문제역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판문점을 통해 김정길 대한

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앞으로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과 2008년 베이징을 핵심 단일팀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결국 렉서스 내비게이션에 ‘독도’라는 지명이 표기된 지도가 공급됐으나, 가공 과정에서 빠진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전체지도인 소축적 지도를 보면 독도 뿐 아니라 각 도의 지명 등 다른 지명도 표

시가 안돼 있고, 지도상의 독도를 손가락으로 찍을 경우 ‘독도’라는 지명이 표시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독도 지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위원장은 전통문에서 송광호 조선을 핵심 단일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8명의 대표단을 도하로 보내겠으니 현지에서 남북체육회장을 열고 제의했다.

베이징을 핵심 단일팀 문제는 선수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다 지난 9월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엔트리 확대를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체포영장 받았지만 법원 종대법원 사항 인정 안해

‘론스타 로비 수사’ 첩첩산중

檢·法 갈등 예고

검찰이 3전 4기 끝에 론스타 미국 본사 앤디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사의 체포영장을 받아내는 데 전력투구했지만, 내심 유회원 대표의 신병 확보에 더 큰 공을 들였다.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을 기각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유대표가 론스타 본사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국내 론스타 관계자 중 최고위 인물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호사였던 하종선 현대상사 대표와 함께 유회원 대표와 연결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회원 대표의 신병 확보에 결국 실패해 영장을 기각돼 있다. 기소에 필요한 정도의 범죄 소명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부장관은 이익,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론스타 경영진이 2003년 외한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무기형 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검찰의 주장 중 핵심 사항인 피해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실상 ‘태입’ 선언처럼 틀릴 수도 있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8개월 넘게 끌어온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영장이 기각돼 어려움이 더해졌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상 ‘태입’ 선언처럼 틀릴 수도 있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8개월 넘게 끌어온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영장이 기각돼 어려움이 더해졌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기획관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